

# “1위 탈환 가자”...벤츠, E클래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출시

### AMG SL 43·AMG E 53 하이브리드 4MATIC+...효성에디션도 출시 '서울 방배 서비스센터' '대구 북구 서비스센터' 2곳 오픈...서비스 강화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를 탈환하기 위해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강화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줄곧 국내 수입차 시장 1위를 달성해오다 2023년 BMW에 1위 자리를 내줬는데, 올해 고성능 차량을 중심으로 소비자 잡기에 나선 것이다.



메르세데스-AMG E 53 하이브리드 4MATIC+ 내·외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4일 '프리미엄 중형 세단 E클래스의 고성능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메르세데스-AMG E 53 하이브리드 4MATIC+'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3.0L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해 최고 출력 585마력, 최대 토크 750Nm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제로백은 3.8초다.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 시 국내 인증 기준 66km까지 순수 전기로 달릴 수 있으며 최고 속력은 시속 140km이다.

도로 조건에 맞게 각 휠의 댐핑(진동 완화)을 조정하는 'AMG 라이드 컨트롤', 뒷바퀴를 최대 2.5도 조향해 민첩한 차량 조작성 돕는 '리어 액스 스티어링' 기능 등이 탑재됐다.

이 모델은 저공해 차량 2중 인증을 획득해 혼잡 통행료와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된다고 벤츠코리아는 설명했다.

한정판 모델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HS효성터클래스는 '메르세데스-AMG E 53 하이브리드 4MATIC+ HS효성에디션'을 출시했다.

'HS효성에디션'은 국내 단 10대 한정 판매되는 모델이다. 에디션은 HS효성터클래스에서만 구매 가능하며 5가지 특별 옵션과 폴라 화이트, 옵티미안 블랙, 알파인 그레이 총 3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이 에디션은 21인치 AMG 크로스 스포크 단조 휠을 기본으로 장착했으며, 내장재로 최고급 나파 가죽을 사용한 게 특징이다. 이 에디션은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또 최근 럭셔리 로드스터 '메르세데스-AMG SL'의 신규 트림인 '메르세데스-AMG SL 43'을 공식 출시했다.

SL은 럭셔리 로드스터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모델이다. 지난 2023년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모델을 먼저 출시했고, 이번에 SL 43 모델 출시로 라인업을 확대했다.

이 모델은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된다. 전자기 모터가 장착된 배출가스 터보차저를 탑재해 반응성을 향상시켰고, 역동적이면서 효율성을 높인 주행이 가능하다.

이 모델은 최고출력 421마력, 최대토크 51kg.m

를 발휘한다. 여기에 벨트 구동식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10 kW의 추가 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7초가 걸린다.

SL 63과 마찬가지로 '2+2' 시트와 소프트 톱을 적용했고, 소프트 톱은 시속 60km 이내에서 열고 닫을 수 있으며 개폐는 15초가 걸린다. 헤드레스트 하단부에서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는 '에어스카프'도 탑재돼, 추운 날씨에도 오픈톱 주행을 즐길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아울러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대구 북구에 서비스센터 2곳을 새로 연다. 서울 방배 서비스센터는 지하 3층~지상 2층의

연면적 5780.82㎡(1750평) 규모로, 총 35명의 정비 전문가와 정비 및 수리가 가능한 27개의 워크베이를 보유해 하루 최대 100대의 차량 수리가 가능하다. 대구 북구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2만2128.30㎡(6700평), 지하 1층~지상 13층 전용 건물로, 벤츠 서비스 네트워크 중 대구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벤츠는 BMW와 수입차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벤츠는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으나 2023년 BMW에 따라잡혔고, 지난해에도 등록대수에서 벤츠(6만6400대)는 BMW(7만3754대)에 밀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SW 브랜드·플랫폼 공개...현대차그룹, 개발자 콘퍼런스 개최

### 플레오스 25 참가자 모집

현대차그룹이 3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플레오스 25' (Pleos 25)를 열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브랜드와 플랫폼을 공개한다. 플레오스는 현대차그룹이 새롭게 선보이는 소프트웨어 브랜드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이동의 개념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브랜드 공개와 함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개발자와 파트너사가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용 앱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을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도 공개한다.

현대차그룹 개발자들이 SDV,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차량 앱 개발을 실습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플레오스 25 홈페이지(<https://pleos.ai/pleos25>)에서 가능하다.

실습 프로그램은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자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일대일 채용 상담도 진행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브랜드와 플랫폼을 공개하고 이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현대차그룹이 그리는 SDV의 생태계를 한눈에 보여줄 예정"이라며 "개발자들과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마모타이어 교체하고 상품권 받아주세요”

### 사은품 증정 등 봄맞이 이벤트

금호타이어가 24일부터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 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의 승용 및 SUV 차량용 타이어 4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혜택을 제공하며,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참여 가능

하다. 행사 제품은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비 프리미엄'과 '마제스티X 솔루스', '크루젠(CRUGEN) HP71', '크루젠 HP51' 등이며 오는 3월 22일까지 GS칼텍스·이마트 결합 모바일 상품권 증정과 함께 현장에서 QR 인증 후 구매 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호타이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는 "겨울철 추위가 물러가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앞두고, 차량 점검 등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도래했다. 겨울철 그립력이 떨어지고 마모가 진행되었던 타이어를 교체하여 안전과 성능을 모두 확보하는 드라이빙 환경을 갖추시기를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기아 EV3, 기자들이 뽑은 '2025 올해의 차'

### 전기차·이노베이션 수상 등 3관왕 올해의 수입차는 벤츠 E클래스 수상

기아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기아 EV3' (EV3)가 국내 자동차 기자들이 뽑은 '2025 올해의 차'로 뽑혔다.

국내 신문·방송·통신·전문지 등 59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EV3가 올해의 차 최종 심사에서 종합 만족도 부문 100점 만점에 75.53점을 받아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올해의 차 심사는 총 12개 브랜드, 15개 차종이 후보에 올랐다. 외부 디자인, 인테리어 및 감성 품질, 계기 조작 편의성, 핸들링 및 주행 감성, 가속 성능 등 10개 항목에서 경합을 벌였다.

EV3는 올해의 차에 더해 올해의 전기차(EV), 올해의 이노베이션에서도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다.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 선도'를 앞세워 선보인 EV3는 통레인지 모델 기준 81.4kWh 용량의 배터리를 적용해 1회 충전으로 501km를 달릴 수 있다.



또 EV3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중 처음으로 아이패드 3.0이 적용돼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속속과 정차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올해의 수입차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올해의 SUV는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선정됐다.

올해의 유틸리티는 렉서스 LM 500h가, 올해의 디자인은 미니(MINI) 컨트리맨이, 올해의 퍼포먼스는 포르쉐 타이칸이 수상했다.

'2025 올해의 차 시상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2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